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01. ⑤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②	07. ④	08. ①	09. ①	10. ⑤
11. ④	12. ①	13. ③	14. ①	15. ③	16. ⑤	17. ④	18. ④	19. ⑤	20. ①
21. ①	22. ③	23. ①	24. ①	25. ②	26. ④	27. ②	28. ④	29. ⑤	30. ⑤
31. ③	32. ④	33. ⑤	34. ③	35. ⑤	36. ②	37. ①	38. ④	39. ③	40. ③
41. ②	42. ③	43. ②	44. ⑤	45. ④					

[1~3]

1. 사회자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에서의 사회자 역할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사회자는 토론자 간의 감정적인 대립을 조정하는 역할은 하고 있으나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회자의 첫 번째 발언과 두 번째 발언 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사회자는 "교내 음악 방송~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라는 토론 배경과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첫 번째 발언에서 말하고 있다. ④ 사회자의 세 번째 발언인 "잠깐만요,~삼가 주십시오."라는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토론의 적절성,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입론에서 '반대자 2'의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연구도 많습니다."라는 발언은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반대자 1'의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을 위해 교내 음악 방송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론을 보강하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입론에서 '찬성자 2'는 교내 음악 방송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내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됨을 말하고 있다. ③ 반론에서 '반대자 1'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음악 감상이 학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고 말하고 있다. ④ 반론에서 '찬성자 1'은 음악 장르 분류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장르의 음악만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다. ⑤ 반론에서 '찬성자 2'는 도서관 개방 시간의 제약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간 이동의 불편함을 말하고 있다.

3. 협상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토론을 바탕으로 협상 참여자의 교섭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가

를 묻는 문항이다. 반론에서 '찬성자 1'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라는 발언을 통해 볼 때, <보기2>의 'ㄱ'은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반론에서 '반대자 2'가 제안한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을 '찬성자 2'가 수용하고 있으므로, <보기 2>의 'ㄴ'도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보기 2>의 'ㄷ'은 반론에서 '반대자 2'가 제안했으나 '찬성자 2'가 반대했으므로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ㄹ'의 '교내 음악 방송 시간의 연장'은 찬성자나 반대자 모두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찬성 측 교섭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4~5]

4. 의사소통의 전략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전략에 대한 설명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이다. ㉡에서 성민은 강사의 말이 자신에게도 인상이 깊었다고 말하여 자신의 느낌을 밝히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성민의 견해에 대해 혜경도 '정말 좋았어'라며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③ ㉢은 혜경의 물음에 대해 병수가 분명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혜경과는 생각이 다름을 생략하여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은 병수의 말을 요약한 성민의 말이지만 병수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 ⑤ ㉤은 병수의 말에 대한 혜경의 비판적 태도가 있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5. 말하기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상대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대화에 적용할 수 있는가 묻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조언은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한 후에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한'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⑤를 볼 때, '요즘 너 삶에 대한~힘들었겠구나.'는 상대를 이해한 말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우리는~쉽지 않을 거야.'는 상대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예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 경험이~어떨까?'는 상대에게 대안을 제시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상대의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그 외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상대가 하려는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말'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상대가 하려는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6~7]

6. 자료 활용의 적절성

정답해설: (나)-1을 참고하면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수요 증가'는 도시 농업에 참여하는 이유와 관련되지만 도시 농업의 문제점이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 농업 활동의 부진'과는 관련성이 적으므로 'Ⅱ-1-다' 의 하위 항목으로 옮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 피하기] ① (가)를 참고하면, 도시 농업은 도시민의 여가 활동으로서 도시의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귀농 인구의 증가'는 도시 농업의 '현황'을 보여주기에 부적합하며,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와 연관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가)에는 '도시 농업'의 '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Ⅱ-2-라'에서는 '인력'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므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Ⅱ-2-라'는 '도시 농업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2에는 도시 농업 활동의 어려움으로 '재배 기술 지식 부족'이 3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에는 기술 개발과 보급이 활발한 쿠바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도시 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가)에는 도시의 농지 감소와 경작 공간 부족 문제가 나타나 있으며, 'Ⅱ-2-가'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 ㉥은 모두 도시 농업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므로, 이들을 묶어 '도시 농업 공간 확보'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7.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해설: '도심지 텃밭에서 농작물을 키워 보니 여가 선용에 도움이 된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며, '국내 도시 농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는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④**

[오답 피하기] ① 도시 농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지 않았다. ② '도시 농부'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으나 '도시 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지 않았다. ③ '이웃과 사이가 좋아졌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나,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⑤ '도시 농부로서의 행복을 누린다'는 도시 농업 참여자들의 소감이 인용되어 있으나, 주제와 관련한 문제의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8. 요약하기의 전략과 실제

정답해설: 첫째 문장은 1문단의 중심 내용이고, 둘째 문장은 2문단의 중심 내용이다. '긴장과 두려움을 즐기며 마치 새가 된 것 같은 기분'이나 '매우 위험한 의식이지만 소년들은 기꺼이 도전' 등과 같이 반복되거나 부가적인 내용은 '자유'나 '용맹성' 등으로 압축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이 추가되지 않았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② 2문단의 중심 내용은 나타나 있으나 1문단의 중심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③ '번지점프는 ~ 매우 위험하며 가혹한 것'이라는 내용은 <보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비판이 추가된 것이다. ④ '밧줄을 몸에 고정하고'나 '12m 정도의 높이에서 맨땅을 향해 점프하는 소년들' 등에는 반복되거나 부가되는 내용이 압축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 있다. ⑤ 첫째 문장에는 1문단의 중심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둘째와 셋째 문장에는 <보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자신의 생각이 추가되어 있다.

[9~10]

9. 글쓰기 전략

정답해설 : '작문 일지'를 보면, 문화유산의 종류가 다양하여 고민하던 필자는 '얼마 전 거리에서 보았던 아리랑 연주 장면'을 떠올리고 아리랑을 소재로 글을 쓰기로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글'에서 '나는 지금껏 우리의 문화유산이 ~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첫째 문단 마지막 부분의 '무관심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둘째 문단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의 현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등에는 문화유산에 대한 필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는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는 글쓴이의 다짐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①**

[오답 피하기] ⓑ: 문화유산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았고 정의의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 아리랑 연주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문화유산의 현황이나 구체적으로 추가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10.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해설 :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 준' 것이나 필자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은 모두 과거의 사실이므로 '되었다'를 현재형 '된다'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 피하기] ① '그러면'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될 때 쓰는 말이다. 여기에는 한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다른 동작이 잇따라 일어남을 나타내는 '그러자'가 적절하다. ② '정도를 더 높이다'의 뜻으로는 '돋우다'가 표준어이다. ③ '으로써'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으로서'가

적절하다. ④ '무관심하다'는 '에/에게'와 함께 쓰이므로 '아리랑에 무관심했던'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한글맞춤법 제30항의 사이시옷 표기에 대한 조항을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제시한 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④이다. '장마비'는 '장마+비'의 합성어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만족한다. 그러나 그 발음은 [장마삐] 혹은 [장맏삐]이므로, 3-2단계가 아닌 3-1단계를 만족한다. 즉,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장맛비'로 적는 것은 맞지만, 단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개살구'의 '개-'는 '야생 상태의' 또는 '질이 떨어지는', '흡사하지만 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개살구'는 합성어가 아닌 파생어이다. 따라서 1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개살구'로 적어야 한다. ② '총무과'는 '총무(總務)+과(課)', 즉 '한자어+한자어'의 구조이므로 2단계를 만족하지 못해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총무과'로 적어야 한다. ③ '만둣국'은 '만두(饅頭)+국'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만두꾹] 혹은 [만둗꾹]이므로, 3-1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만둣국'으로 적어야 한다. ⑤ '허드렛일'은 '허드레+일'의 구조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만족하며, 그 발음이 [허드렌닐]이므로, 3-3단계를 만족한다. 따라서 사이시옷을 표기하여 '허드렛일'로 적어야 한다.

12. 표준 발음법 적용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표준 발음법 제13항과 제15항의 내용에 대해 '앞앞이[아바피]'를 예로 들어 설명한 후,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선 제13항에서는 홑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 등과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앞이'의 '-이'는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앞이'는 [아피]로 발음해야 한다. 또한, 제15항에서는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ㅢ'들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앞앞'은 [아밥]으로 발음해야 한다. 즉,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해야 한다. 정답은 ①로, '무릎이야'에서 '이야'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무르피야]로 발음하며, '무릎 아래'의 '아래'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무르바래]로 발음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서녘이나'와 '서녘에서'의 '이나'와 '에서'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

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서녀키나]와 [서녀케서]로 발음한다. ③ '겉으로'의 '으로'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거트로]로 발음한다. '겉아가미'의 '아가미'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거다가미]로 발음한다. ④ '배꽃이'의 '이'는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배꼬치]로 발음한다. '배꽃 위'의 '위'는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5항(㉡)에 따라 [배꼬뒤]로 발음한다. ⑤ '빚에'와 '빚이며'의 '에'와 '이며' 모두 조사, 즉 형식 형태소이기 때문에 제13항(㉠)에 따라 [비제]와 [비지며]로 발음한다.

13. 문장성분을 활용한 고쳐쓰기

정답해설 : 이 문항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비문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에서 필요한 문장 성분은 '여전히'와 같은 부사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해결책인지를 드러내는 문장 성분이다. 예를 들어, '그 사태에 대한 해결책' 혹은 '그 사태의 해결책'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에는 '대하지'와 호응하는 '누구에게'의 부사어나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②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에는 '지내기도'와 호응하는 '누구와'의 부사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④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존경했다."에는 '존경했다'와 호응하는 '누구를'의 목적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⑤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에는 서술어 '유학자이다'에 호응하는 주어가 빠져 있다. 따라서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14. 문장의 종결 표현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우리말의 종결 표현 중 의문문에 대해 설명한 후, 의문문의 다양한 의미기능을 제시된 사례에 적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 우리말의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질문을 하여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여기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과 '몇, 얼마, 누구, 언제, 어디, 무엇, 왜' 등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서 듣는 이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 그리고 굳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술이나 명령의 효과를 내는 수사 의문문이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은 설명 의문문에 대한 진술이며, ㉡은 수사 의문문 중에서도 명령의 효과를 내는 의문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은 ①로, ㉮에는 '언제, 어디'의 물음말이 포함되어 있어 설명 의

문문에 해당한다. 또한 ㉰는 '일어나지 못하겠니?'라는 의문문의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일어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담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는 듣는 이로 하여금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에 해당하며, ㉱는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15. 의미의 중의성 파악·해소

정답해설 : 이 문항은 중의적 의미를 지니는 문장을 제시한 후 이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하나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정답은 ③이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는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을 지니는 문장으로,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와 현재 교복을 다 입은 후의 상태라는 의미의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처럼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치면 동작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만을 나타내게 되어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③에서와 같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라고 수정하여도 여전히 동작의 진행과 완료에 따른 중의성은 해소되지 않는다. 즉, ③의 수정된 문장은 처음 문장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중의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예쁜 모자의 장식물'은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모자가 예쁜 경우'와 '장식물이 예쁜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때 '장식물이 예쁜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예쁜, 모자의 장식물'과 같이 쉼표를 사용할 수도 있고, ①의 '모자의 예쁜 장식물'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 ② "다 오지 않았어."는 부정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와 '한 명도 오지 않은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만으로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나 ②의 "손님들이 다는 오지 않았어."처럼 표현을 수정하면 된다. ④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라는 문장은 비교의 대상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현으로, '형이 나와 동생 중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와 '내가 동생을 좋아하는 것보다 형이 동생을 더 좋아한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 즉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나 ④의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처럼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는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이 발생하는 문장으로,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와 '손님이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경우'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전자의 의미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의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표현을 수정하거나 ⑤의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처럼 단어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

16. 훈민정음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이 문항은 <보기 1>을 통해 순경음과 초성 합용 병서에 대해 설명한 뒤, 그 형태를 <보기 2>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가)는 순경음(脣輕音)에 대한 설명으로, 아래 'ㅇ'을 연서(連書)하여 표시한 음인 'ㅱ', 'ㅸ', 'ㅹ', 'ㅸ'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 '수ᄫᅵ'의 '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초성 글자를 나란히 쓰는 초성 합용 병서(合用竝書)에 대한 설명으로, 'ㅺ, ㅼ, ㅽ/ㅳ, ㅄ, ㅄ/ㅄ, 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ᄯᅳᄅᆞ미니라'의 '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ᄆᆞᄎᆞᆷ내와 ㉡ ᄆᆡᆼᄀᆞ노니를 통해서는 '아래 아(ㅣ)'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순경음이나 초성 합용 병서와는 관계가 없다.

[17~20] 인문,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해석'

지문해설 : 이 글은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이 다름을 설명하고 있다. 경문 해석의 차이는 훈고의 차이와 해석자의 사상적 관심이 다름에서 비롯되는데, 주희는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의 밝은 능력인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하는 것, 정약용은 행위를 통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 덕목인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명명덕'의 의미라 하였다. 그리고 주희는 『대학』을 새로 편찬하면서 백성을 가르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친민(親民)'을,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잘 표현하는 '신민(新民)'으로 고쳤는데, 정약용은 이에 대해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지만, 주희는 개인이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여 도덕적 완성에 이를 것인가에, 정약용은 개인과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덕행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교정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주제] 『대학』의 명명덕(明明德)과 친민(親民)에 대한 주희와 정약용의 해석 차이

17.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3문단의 '유학자들은 자신이 먼저 인격자가 될 것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뿐 아니라 백성 또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원칙으로 삼는다.'와 4문단의 '주희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에서 주희와 정약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동체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고대 중국에서 대학은 교육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대학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전하고 있는 책이 『대학』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인간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가려 명덕이 발휘되지 못하게 되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친(親)보다는 신(新)이 백성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취지를 더 잘

표현한다고 보았던 것이다'에서 글자의 훈고에 대해 언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정약용은 당대의 ~관심이 있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내용 해석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문단에서 '주희도 자신이 명덕을 밝힌 후에는 백성들도 그들이 지닌 명덕을 밝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신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명명덕을 주희는 '명덕이 발휘되도록 공부한다는 뜻'으로, 정약용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두 사람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② 주희와 정약용은 ⓐ는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으로, ⓑ는 백성을 가르쳐 인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를 ⓐ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본 것이 아니다. ③ 2문단의 '명명덕은 구체적으로 효, 제, 자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뜻이다'는 명명덕에 대한 정약용의 해석이다. ⑤ 3문단에서 정약용은 '친민을 백성들이 효, 제, 자의 덕목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해석'했고 '백성들이 이전과 달리 효, 제, 자를 실천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새롭다는 뜻은 있지만 본래 글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므로 '신민'이 '친민'의 본래 의미를 잘 나타내었다고 보았다고 할 수 없다.

19.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주희는 백성을 가르쳐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친민'을 '신민'으로 고쳤다고 하였다. 하지만 왕양명은 백성이 가르쳐야 할 대상인 동시에 사랑해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기 위해 '신'보다는 '친'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을 함께 고려할 때, 왕양명은 주희의 해석이 백성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한정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왕양명이 '명덕'을 마음의 밝은 능력으로 해석한 것은 정약용이 아니라 주희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약용은 왕양명이 '명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③ <보기>에서 정약용은 왕양명이 '친민' 또한 바르게 해석하지 못했다고 하였으므로, 왕양명과 정약용의 '친민'에 대한 해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보기>에서 왕양명은 당시 통용되던 『대학』의 '신민'을 '친민'으로 고쳤으므로, 고본 『대학』의 '친민'을 수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정약용은 주희가 '친민'을 '신민'으로 고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았다.

2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인도(引導)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다', '이끌어 지도하다'는 의미를 지니

고 있다. ㉠은 '목적하는 곳으로 바로 가도록 같이 가면서 따라오게 하다'는 의미와 '사람, 단체, 사물, 현상 따위를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지시(指示)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다. 문맥상 ㉡은 상대편이 아직 모르는 일을 알도록 일러준다는 의미이므로 지도(指導)가 더 적절하다. ③ 개편(改編)은 '책이나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다', '조직 따위를 고쳐 편성하다'는 의미이다. ㉢은 글이나 글자의 잘못된 점을 고친다는 '수정(修訂)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④ 도착(到着)은 '목적한 곳에 다다르다'는 의미이다. ㉣은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의 의미이므로,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는 의미인 도달(到達)하다로 바꿔 쓰는 것이 적절하다. ⑤ 쇄신(刷新)은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다'는 의미이고, ㉤은 '그릇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는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21-23] 예술, '20세기 미술의 특징'

지문해설 : 이 글은 단토의 '미술 종말론'을 바탕으로 20세기 미술의 특징을 예술가의 주체성에 따른 '무한한 다원성'으로 설명한 글이다.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0세기 미술의 양상은 르네상스 미술, 17세기 네덜란드, 19세기 낭만주의 미술에서 이어져 온 하나의 흐름이었다.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예술가의 정신적 저작권에 대한 선언이었으며 이는 '형식의 자율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흐름은 네덜란드의 화가들이 친근한 일상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19세기 낭만주의 화가들이 내면을 무한하게 표출하게 되는 '내용의 자기 중심화'로 이어졌다. 20세기 미술은 이와 같은 일관된 흐름의 정점이긴 하지만 이와는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의 구분이 종래에는 '전시적 요소'에 의존한 반면 20세기 미술은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미술은 일종의 철학이 되고 작품의 생산과 감상을 매개하는 비평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주제] 20세기 미술의 연속성과 질적 차별성

21.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2문단 둘째 문장에서 '르네상스 때 시작된 화가의 서명은 (작품이 외부의 주문에 따라 제작되더라도 그것의) 정신적 저작은 화가에게 있음을 알리는 행위였다'는 내용을 통해 화가들의 서명이 예술가의 주체성을 표출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2문단에서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건장한 이탈리아 남성의 모습으로 그렸던 사례에서 보듯, 르네상스 화가들은 주문된 내용도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미지화했다'는 내용을 통해 르네상스 때 예술가들이 자율적인 이미지를 창출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자율성의 표출이 르네상스 이전부터 보편적이었는지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3문단 첫 문장을 통해 '형식의 자율화'는 르네상스 때 이미 이루어졌으며,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들은 '내용의 자기 중심화'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 셋째, 넷째 문장에서 현대 미술에서 작품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가 아니라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 넷째, 다섯째 문장에서 현대 미술에서 비평이 중요시되는 까닭이 작품에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 곧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와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다.

22. 중심 화제 파악

정답해설 : 단토에 따르면 '20세기 미술'에서는 미술을 정의하는 (종래의) 기준이 해체된 것은 맞지만 이와 같은 기준의 해체로 인해 예술 작품 생산이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단토가 말하는 미술의 '종말'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 모든 것이 미술 작품이 될 수 있게 된 개방적이고 생산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0세기 미술'은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적 주체성과 자율성의 발휘라는 일관된 흐름의 정점'으로 과거에 비해 예술가의 자율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② 4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세기 미술'에서는 빈 캔버스, 자연물, 기성품 등도 '작품'으로 인정된다. ④ 4문단 첫 문장에서 '단토'는 '20세기 미술'과 과거의 미술 사이에서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질적 차별성을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0세기 미술'은 더 이상 '내용, 형식, 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를 통해 '미술'과 '미술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는다. 과거의 내용과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해도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적 창조로 인정될 수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내용,형식,재료'와 같은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작품이 아니라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하는 지적인 행위에 의존하여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예로는 이론적 해석에 따라 일상품인 '소변기'가 미술 작품으로 인정받은 뒤샹의 <샘>이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브라크의 <과일 접시와 유리잔>은 회화는 2차원적이라는 고정관념을 탈피하기는 했으나 작품 밖의 비전시적 요소에 의존하여 미술 작품의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니며 여전히 '내용·형식·재료'와 같은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예이다. ③ 플록의 <1950년 32번>은 즉흥적 이미지로 창조적 무의식과 초현실 세계를 표현하였으나 '내용·형식·재료'와 같은 지각 가능한 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예이다. ④ 칸딘스키의 <콤퍼지션 Ⅶ>은 순수 이미지의 언어적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지적인 행위인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미술 작품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⑤ 몬드리안의 <브로드웨이 부기우기>는 수직·수평의 율동적 흐름으로 음악적 리듬감을 추구하였으나 지적인 행위인 '비전시적 요소'에 의해 작품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24~27] 사회, '소송 제도'

지문해설 : 이 글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와 같은 소송 제도에는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 등이 있는데, '공동 소송'은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으로 소송 진행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이 배상을 받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미흡하고 기업의 시스템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대표 당사자가 되어 소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전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초기 소송 비용이 고액이라는 단점이 있다. 단체 소송은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가 소를 대리하는 방식으로 공익적 성격을 지니지만 손해 배상 청구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동 소송은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집단 소송과 단체 소송은 최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다.

[주제] 다수의 피해자를 위한 소송 제도의 종류와 특징

24. 내용 전개 방식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피해를 입은 갑이 A회사에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소송 제도의 종류로 공동 소송, 집단 소송, 단체 소송을 소개하면서, 이들 소송 제도의 특징과 한계점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글은 원칙이 아닌 해결의 구체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 방법들 간의 관계 역시 대립적이지 않다. 또한 각각의 제도가 지닌 장·단점을 개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소송 제도들을 소개하면서 소송과 관계된 몇몇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은 나타나지 않으며, 그들에 대한 통합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이 글에서는 가설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⑤ 이 글이 집단적 피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다양한 소송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나타나지 않고, 해결책 역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을 뿐 일관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25. 세부 정보, 핵심 정보의 파악

정답해설 : 공동 소송은 소송 당사자 수가 여럿이 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소송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선정 당사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집단 소송이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것은 단체 소송으로 공동 소송과는 관계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선정 당사자 제도는 공동 소송의 일종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소송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하는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③ 다섯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면 단체 소송의 진행 주체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로, 이때 단체의 자격은 법률이 정함을 알 수 있다. ④ 공동 소송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소송 방식은 아니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 집단 소송은 피해자의 일부가 피해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므로 집단 소송이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26. 전제, 결론 추론

정답해설 : A회사의 잘못은 시스템 관리를 허술하게 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이지 개인 정보를 A회사에서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갑이 진행한 소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갑은 A회사에게 사이트 운영의 중지를 요구하였는데, A회사가 이를 거부하였고, 사이트 운영이 계속되는 한 링크 파일을 통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계속될 것이므로 소송의 목적에 개인 정보 침해가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은 포함된다. ② A회사의 허술한 시스템 관리로 인해 개인 정보의 유출이 이루어졌으므로 소송의 목적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포함된다. ③ 소송을 통해 갑과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청구한 내용에 피해의 배상이 포함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배상은 소송의 목적이 된다. ⑤ 갑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배상액에 비해 소송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므로, 공동 소송의 목적에 비용 절감은 포함될 수 있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우리나라에서 집단 소송은 증권과 관련된 사안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기업이 회계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 투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허용된다고 했으므로 ②는 집단 소송의 제한적 도

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단체 소송은 소비자 분쟁과 개인 정보 피해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지만 소송의 주체는 법률이 정한 전문적 단체이므로 가입자들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③ 집단 소송은 피해자들의 일부가 전체 피해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진행하는 소송이므로 중립적인 단체를 대표 당사자로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대기업이 출시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 분쟁과 연관된 것이므로 집단 소송은 제기할 수 없고 단체 소송만 가능하다. ⑤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소비자 협회가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체 소송에 해당하므로 기업에 손해 배상 청구는 할 수 없다.

[28~29] 과학, '각운동량'

지문해설 : 이 글은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인 각운동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운동량은 질량(m), 회전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r), 속도(v)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m×v×r로 표현된다. 각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을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이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각운동량은 보존된다.(각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의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각속도는 회전 운동에서 물체가 단위 시간당 회전하는 각이며 회전 관성은 회전 운동에서 각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낸다. 이때 회전 관성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 이 글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회전하는 물체의 운동량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피겨 선수의 움직임을 예로 듦으로써 글의 이해를 돕고 있다.

[주제]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원리)

28. 인과 관계, 상관 관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는 각운동량의 보존 법칙을 회전하는 물체의 질량, 회전하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속도, 회전 관성 등의 요소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 보면 질량 요소들의 회전 관성은 질량 요소가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멀수록 커진다는 진술이 있다. 답지에 제시된 쇠공과 플라스틱 공은 크기와 질량이 동일하지만, 플라스틱 공은 속이 차 있고 쇠공은 속이 비어 있다. 다시 말하면, 플라스틱 공은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과 가까이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것까지 배열되어 있으나, 쇠공은 질량 요소들이 모두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쇠공을 이루는 질량 요소들이 회전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쇠공의 회전 관성이 더 크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2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이 클수록 회전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렵다.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회전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을 변

화시키는 힘이 돌림힘이다. 팽이가 회전을 멈추는 것은 곧 각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이므로 돌림힘의 작용 없이 회전을 멈출 수는 없다. ③ 3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보면, 회전 관성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이다. 따라서 마찰이 회전 관성을 작게 만든다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다. 1문단에 의하면,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변화하게 하는 것은 각운동량이고, 이에 따라 회전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마찰 또는 공기 저항이 질량이나 회전축과의 거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각운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회전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⑤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의 각운동량은 '각속도×회전 관성'으로 표현된다. 하나의 시곗바늘이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같다. 그런데 한 점(A)은 회전축과 가깝고 한 점(B)은 회전축보다 멀다.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수록 회전 관성은 커지므로, A에 비해 B의 회전 관성이 더 크다. 이때 A와 B의 각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A의 각속도가 B보다 크다. 이는 4문단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회전을 하는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가까우면, 즉 피겨 선수가 팔을 몸에 바짝 붙이면 각속도가 커진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윗글에서 각운동량을 표현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멀면 회전 관성이 커지고 각속도는 작아진다. 반대로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가 가까우면 회전 관성이 작아지고 각속도는 커진다. <보기>의 상황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했기 때문에, 각운동량에는 변화가 없다. <보기>에서는 B단계에서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 따라서 회전 관성은 작고 각속도는 크다. 그러므로 B 단계의 자세로 회전 운동을 계속 하면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A~E 단계의 자세보다 회전수가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A~E 단계를 거칠 때 회전하게 되는 1.5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4문단의 피겨 선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겨 선수는 회전을 빨리 하기 위해서 팔을 몸에 바짝 붙인다고 했는데, 이는 질량 요소와 회전축의 거리를 최대한 좁히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A~E의 각 단계는 각운동량이 모두 같다. ② A~E의 단계는 같은 다이빙 선수가 다이빙을 할 때 자세가 변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질량 요소들의 합은 늘 같다. D 단계에서는 B 단계보다 회전축과 질량 요소들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각속도가 작은 것이다. ③ B 단계는 질량 요소들과 회전축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회전 관성이 가장 작다.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운동량은 보존될 것이고, 회전 관성이 가장 작으므로 각속도는 가장 크다. ④ C에서 E로 진행되면서 다이빙 선수의 질량 요소는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질량 요소와 회전축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회전 관성은 커진다.

[30]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

지문해설 : 이 글은 그 이전과 구별되는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의 변화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12세기 이전의 독서는 종교적 목적에 의해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2세기에는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과 절의 구분, 주요 구절 표시, 차례와 찾아보기 같은 보조 장치 마련 등 새로운 방식으로 편집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의 발행이 성행하였다.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은 다양한 정보와 해석을 편리하고 빠르게 찾고 이를 논증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지만 원전 독서를 등한시하게 하여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주제] 12세기 유럽의 독서 문화와 그 장단점

3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전 부분에서 12세기 유럽에서 유행한 책의 종류, 12세기 독서법의 장단점, 12세기 독서의 목적, 12세기 독서법과 이전 시기와의 차이점 등은 드러나 있으나 12세기 유럽에서의 저자와 독자는 어떤 계층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에는 주로 책의 중요한 내용을 뽑아 간략하게 정리한 요약집, 백과사전과 같은 다양한 참고 도서가 유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 첫째, 둘째 문장에서 이 시기의 독서법인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읽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원전이 담고 있는 풍부함을 맛볼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12세기 독서의 주된 목적이 '폭넓고 풍부한 지식의 습득'에 있었음을 2문단 첫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1문단 첫째 문장에서 이전 시기의 독서는 주로 '천천히 반복해서 읽는 방식'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2문단의 편집 방식의 변화와 3문단 둘째 문장에서 12세기 독서는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읽는' 방식이었음을 추론,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의 독서법은 이전 시기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31~33] 고전시가 - 안민영, '매화사'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영매가'라고도 불리며 작자인 안민영이 스승인 박효관의 산방을 찾아 함께 어울리며 책상에 있는 매화를 보며 노래한 8수로 이루어진 연시조이다. 매화와 화자를 둘러싼 분위기가 운치 있게 표현되어 있으며, 화자는 전체적으로 매화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표현하는 한편 매화가 지닌 우아함과 절개를 예찬하고 있다.

[주제] 매화에 대한 예찬

31.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은 추운 겨울에 핀 매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시각적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촉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치고절(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로 표현되는 매화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제6수의 '찬 기운 새어 들어 자는 매화를 침노하니'에서 시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② 시 전체적으로 매화의 대답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화의 형식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시적 대상인 매화에 감정을 이입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볼 수 없으며, 화자의 애상감 또한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제6수의 '바람'과 '눈'이 부정적 현실을 상징한다면 이들이 매화에게서 '봄뜻'을 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명령형 어조는 찾아볼 수 없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제8수에서 화자는 사방이 눈이기 때문에 이러한 눈 속에서도 필 수 있는 꽃은 '철쭉'과 '두견화'가 아닌 매화뿐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매화와 다른 자연물의 공통된 특성이 아닌 대조적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매화의 그림자가 비치는 방에서 두세 명의 노인과 함께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권하고 있다. 이때 창밖으로 달이 떠오르는 낭만적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② 제3수에서는 제1수와 달리 '매화'를 '너'로 칭하며 의인화하고 있으며,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월을 기약'하는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제6수에서는 '찬 기운'이 '매화를 침노'하는, 매화가 시련을 겪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봄뜻'을 잃지 않는 매화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⑤ 제6수에서 '~ 앗을쏘냐', 제8수에서 '~있으리'의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매화가 지닌 절개를 강조하고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중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할 때 당대의 이념과 관련지으면 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봄뜻'이라는 시어 또한 당대 이념과 관련지으면 의미를 깊이 파악할 수 있겠으나, 반드시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서만 감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매영이 부딪힌 창'을 보며 '거문고와 노래'를 하는 행위에서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는 풍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잔 들어 권할 적에'에

서 화자가 술잔을 들어 다른 이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매화로 인해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풍류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③ 매화를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감상할 때, '황혼월'로 인해 조성되는 낭만적 분위기가 매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화자는 매화를 '아치고절'로 예찬하고 있는데 매화가 나타내는 '우아한 풍치'에서 매화를 감상하는 심미적 가치를, '높은 절개'에서 당대의 규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34~37] 고전소설 – 임춘, '국순전'

지문해설 : '국순전'은 고려 고종 때 임춘이 지은 작품으로 가전체 문학의 효시라는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의인화한 술(국순)의 일대기적 구성을 바탕으로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소홀히 하는 임금, 본분을 망각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관리들, 임금의 눈을 가리는 간신배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가전체의 전기(傳記) 형식과 허구적 성격은 후대 고전 소설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주제] 술에 탐닉하는 것에 대한 경계와 간사한 벼슬아치에 대한 풍자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국순이 섭법사와의 담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계기, 산도의 국순에 대한 평가, 청주종사(높은 벼슬)에서 평원독우(낮은 벼슬)로 강등되었을 때의 국순의 반응, 관상가가 국순의 미래를 예언한 일 등을 열거하며 국순의 인물 됨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예화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윗글은 전지적 시점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서술자가 자신의 체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윗글에서는 대화를 통해 작중 정황을 드러낼 뿐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윗글에서는 시간적 순서대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윗글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인물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은 퇴임하면서 국순이 한 말이지만, 국순은 '선조의 뜻을 받들어'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순수했던 성품을 되찾고자' 스스로 물러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국순은 임금이 자신을 꺼려하는데도 벼슬에 연연해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국순의 그릇과 도량이 크고 깊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만경창파'는 '한없이 넓고 넓은 바다'를 뜻하고 이는 곧 국순의 마음이 크고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의 "천하의 백성들을 그르치는 자도 필경 이 아이일 것이다."에서 국순이 장래에 세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에서 국순이 자신의 벼슬이 강등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강등된 벼슬을 거절하고 차후에 더 높은 벼슬을 할 것이라는 포부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의 '순이 권세를 얻게 되자'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손님을 대접하고, 종묘에 제사를 받드는 등의 일을 앞장서서 맡아 주관하였다.'에서 '친교 모임이나 공식적 행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국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징

정답해설 : [B]에는 국순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와 국순에 대한 산도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C]에는 국순의 관직 입문, 국순에 대한 임금의 총애, 국순의 입신양명, 국순의 국정 문란, 퇴임과 사망이 시간적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B]에는 주로 주인공의 과오를, [C]에서는 주로 훌륭한 업적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국순의 조상 '모'가 공이 있음에도 벼슬을 마다한 일, 임금이 그 후손을 후대하고 교분을 맺은 일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순의 가문 내력'과 '국순이 유서 깊은 가문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C]에서는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부정 축재를 일삼는 국순(간신)을 비판·풍자하고 있고, 이를 다시 [E]에서 '옳고 그름을 변론하지 못하고 ~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라고 하며 재차 강조하고 있으므로 '[C]에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E]에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D]의 '자식은 없고', 먼 친척인 '청(淸)이 출사하여 벼슬이 내공봉에 이르렀으며 그 자손이 다시 중국에서 번성하였다.'에서 '후대의 가문 내력'과 '국순 가문이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E]는 이 작품의 마지막 장면으로 '가계-행적-논평' 중 논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논평은 사신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되었지만, 이 속에는 순의 행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간의 세태를 풍자하고자 한 작가의 견해가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7. 인물의 태도를 한자성어와 관련짓기

정답해설 : ⓐ(입을 굳게 다문 채)는 술에 탐닉하여 국정을 외면하는 임금의 태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국순의 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적절한 것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함구무언(緘口無言)'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중언부언(重言復言):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함.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뭇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④ 이실직고(以實直告): 사실 그대로 고함. ⑤ 어불성설(語不成說): 말이 조금도 사리에 맞지 아니함.

[38~40] 현대시 –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

지문해설 : 이 시는 고민, 좌절, 절망의 끝에서 허무 의식을 떨치고 일어서려는 강인한 생명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삶의 가치에 대한 회의와 번민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한 대결의 공간으로 '아라비아 사막'을 설정하고,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열렬한 고독'의 길을 가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음의 세계에 자신을 바치겠노라는 비장한 의지를 드러낸다. 여기서 참된 '나'란 성취하고자 하는 '근원적 생명과 순수성으로서의 자아'라 할 수 있다.

[주제] 본연의 생명을 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

현대시 – 신경림, '농무'

지문해설 : 이 시는 1970년대 농민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피폐해진 농촌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농무'는 농민들에게 신명과 흥겨움을 주는 놀이지만, 이 시에서는 농민들의 절망과 분노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장치가 된다.

[주제] 피폐해진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한과 고뇌

38.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는 대구의 형식을 띠고 있는 '한 다리를 들고 날나리를 불꺼나 / 고개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꺼나'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강한 인상을 주면서 시적인 여운을 남기고 있다. 특히 '~ㄹ꺼나'라는 의문형 어미가 대구를 통해 반복됨으로써 여운이 강화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 있지만, '보름달은 밝아' 등으로 볼 때 시간적 배경이 밤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밤에서 낮으로의 시간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시는 주로 시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다른 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의 '아라비아 사막'은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에는 탈속성을 지닌 시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화자가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호올로 서면'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오히려 화자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새로운 '나'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는 화자가 '원시 본연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추구하는 대상인데 반해, '병든 나무'는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재 화자 자신의 모습을 표상한다. ② '영겁의 허적'은 아무 것도 없이 적막한 '아라비아의 사막'의 극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으로, 화자가 '나'와 대면하기 위해 도달해야 할 조건에 해당한다. ④ '나'란 '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본래 원시적 생명력을 지닌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회한 없는 백골'은 '나의 생명'을 회복하지 못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화자의 강한 생명 회복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4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서 농민들이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추는 '농무'는 오히려 현실의 암울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내 준다고 하였으므로, 이 '농무'가 '농촌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태도'를 잘 보여 준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농무가 역설적으로 현실의 암울함을 드러내 준다는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화자가 농무를 추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정서는 [A]에서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를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악을 쓰는', '킬킬대는구나', '울부짖고', '해해대지만' 등에서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농무를 흥겨운 축제로 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는 농민들이 처한 상황을, ⓐ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정서를 보여 주는 것으로, 1970년 전후의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민들이 도시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보기>와 시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는 비참한 농촌 현실 속에서 희망을 잃은 화자가 자조하며 스스로에게 던지는 냉소적인 질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1~43] 최인훈, '광장'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해방 이후 6.25 전쟁까지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역사와 민족의 문제,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삶의 방향 등에 대한 모색을 그리고 있다. 다른 전후 소설이 대체로 전쟁의 참상 및 그 속에서 느끼는 삶의 어려움을 그리며 이념적 편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이 소설은 그런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문학사적인 의의를 갖는다. 이 소설의 주인공 '명준'은 아버지 때문에 남한 사회에서 고난을 겪고 개인적 공간인 '밀실'만 존재하고 '광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남한 사회에서 환멸을 느껴 밀입북을 감행한다. 외부에서 봤을 때 '밀실'과 '광장'이 균형 잡힌 것처럼 보였던 북한 사회도 실상은 그렇지 않아 명준은 또 다시 환멸을 느낀다. 북한은 남한과 반대로 '광장'만이 존재하고 '밀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남한과 북한 양쪽의 체제와 실상을 비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양쪽에서 환멸을 느낀 명준은 포로수용소에서 중립국을 택하여 인도로 향한다. 인도로 향하던 중, 자신을 따라 오던 갈매기 두 마리를 자신이 사랑하던 여자와 뱃속에 있던 아이로 여기게 된 명준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푸른 바다가 광장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바다로 뛰어든다.

[주제] 분단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에 대한 추구

41.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명준'의 남한과 북한에서의 경험, 인민군 장교로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경험에서 느끼고 깨달은 바를 서술한 부분이다. 첫 부분의 큰 따옴표가 붙은 부분도 실제 대화가 아니라 '명준'이 혼자 상상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말할 것이다', '돌아볼 것이다', '웃겠지' 등의 서술부를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시된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명준'이라는 인물의 의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명준'이 남한과 북한, 한국전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파악하고 판단한 현실에 대한 관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부분은 '명준'이 현실에 대해 파악하고 판단한 것을 관념적인 어휘를 이용하여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장면 전환이 거의 없으며 그 분위기도 긴박하지 않다. ③ 공간에 대한 묘사가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공간 자체만으로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④ '명준'이 남한행을 권유받는 장면과 중립국에 가서 사는 장면은 회상이라고 할 수 없다. '명준'의 생각을 서술한 부분 또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살았던 공간들에 대한 관념적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⑤ 제시된 부분에서는 '명준'이 혼자 생각하는 내용들만 제시되기 때문에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4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5면의 네 번째 줄부터 아홉 번째 줄까지를 보면 셈할 줄 모르고, 환상에 빠지고, 마술을 믿었으며, 속은 사람들에 대해 서술이 되어 있다. 열 번째 줄에 '난파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낌새를 차리고 항구를 돌아본 후 참을 알고 돌아온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환상이 허황됨을 알아차린 존재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의 [난파꾼]은 이명준을 가리킨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난파꾼]은 '항구를 잊어버리기로 하고' 물결을 따라 나서는 존재이다. [난파꾼]의 네 줄 윗부분을 보면 '이제 이루어 놓은 것에 눈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남아 있지 않다.'는 서술도 있다. 따라서 난파꾼은 과거에 집착하는 존재가 아니라, 과거를 잊고자 하는 존재이다. ② [난파꾼]은 '환상의 술에 취해 보지 못한 섬에 닿기를' 바란다. 이는 곧 그 섬이 어디인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곳에 닿기 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주할 곳이 어디인지 모르며, 혹시 안다고 해도 아직 도달하지는 못한 존재이다. ④ [난파꾼]이 가기로 결정한 곳은 중립국이며, 그 중립국에서 바라는 삶은 소박한 소시민의 삶이다. 따라서 속세를 떠난 구도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⑤ [난파꾼]은 '자연의 수명을 다하기를 기다리면서 쉬기 위해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현실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는 존재는 아니다.

4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광장」이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로 인해 사회적 모순과 문제점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조차 은폐하거나 호도하는 사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념적 대립을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인공 '명준'은 이분법적 구도의 희생자에 해당한다. '명준'은 그러한 이념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중립국을 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준'의 선택을 '이념'을 택했다고 한 진술이나 '행복한 삶'을 마다했다고 하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명준'은 이념적 선택을 강요하는 억압적 상황에 대한 반감과 환멸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고 탈이념적인 소시민적 삶의 모습이다. 그리고 중립국을 선택한 후 마음껏 웃음을 터뜨리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웃음은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대한 조소,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한 후련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마술사를 언급한 부분의 어조는 매우 냉소적이다. '허황하고', '철없는', '잘못', '환상', '마술' 등의 어휘가 이러한 태도를 보여 준다. 마술사라는 표현 자체가 실제 마술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를 감추거나 왜곡하며 체제를 유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과 체제에 대한 냉소적 태도가 드러난다는 진술은 타당하다. ④ '참을 알고 돌아온 바다의 난파자'들을 '감옥'에 가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이때 '참'을 안다는 것은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⑤ '명준'이 중립국을 택한 후 상상하는 삶의 모습은 매우 일상적이며 탈이념적이다. 이는 마지막 두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4~45] 극, 이근삼, '원고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꿈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돈 버는 기계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린 대학교수와 그 가족을 통해 돈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고 있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정상적 의사소통마저 마비된 한 가정의 일상을 통해 가족마저 파괴해버린 현대 사회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독설적인 대사로 현대인의 기계적 삶의 한 단면을 풍자하며, 방향 감각과 도덕적 판단을 상실한 채 일상에 매몰된 인간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다. 한편 작중 인물이 해설자 역할을 겸하고 있다는 점, 비현실적인 상황을 구성하는 소도구가 등장한다는 점 등에서 당시로서는 매우 실험적인 수법을 시도한 작품이다. 그래서 <원고지>는 특정한 줄거리, 혹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다루지 않는다. 다만 등장인물들의 반복되는 일상과 이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주제를 나타낼 뿐이다.

[주제] 현대인의 기계적인 삶에 대한 풍자

4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철쇄'는 교수가 가족의 물질적 부양을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하는 데서 오는 현실의 억압과 구속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소도구이다. 교수가 등장하는 극의 초반, 교수가 허리에 두른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는 것으로 제시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에서 처는 교수 허리에 감긴 '철쇄'를 풀어 주지만 소파 뒤에서 또 하나의 '굵은 줄'로 다시 감고 있는데, 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가장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정에서도 굵은 줄로 상징되는 구속과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가 자율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대사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다고 했지만, 교수가 등장할 때는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지루한 느낌의 음악은 아버지가 쾌활하고 가볍다는 장남의 말과 충돌하여 서로 배치되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② '원고지 칸투성이'인 '양복'은 그의 삶이 원고지와 밀착되어 있음을 말하므로 교수 신분을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의상이다. 또한 '칸투성이'이므로 그가 규격화된 틀에 얽매인 채 살아가는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다. ③ 교수는 '비명'같이 비참한 소리를 낸다고 지시하고 있지만, 장녀는 '달콤한 하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장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거나, 읽어낼 의도가 없으므로 가족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④ 장녀를 비추던 플랫폼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면 처와 교수가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조명 연출은 관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교수와 처에게 향하도록 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국어 영역 B형 정답 및 해설

정답해설 : <보기>에 따르면 이근삼의 희곡에는 '해설자'가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극중 배역에서 일시적으로 빠져나와 관객에게 직접 발화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극중 장녀는 교수와 처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전달한 후, 처가 교수에게 하는 행동(연기)에 대해서도 정보를 전달하는 해설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때 장녀는 플랫폼에 나타났다가 대사가 끝나면 플랫폼 조명이 꺼지며 무대에서 자연스럽게 퇴장한다. 이러한 무대 연출은 장녀가 있는 공간을 교수와 처가 있는 공간과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장녀의 해설자 역할을 분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장남은 자신에 대한 소개와 무대 공간에 대한 짤막한 정보를 전달한 후 행복한 가정의 비결에 대한 억지스러운 설명을 한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극중 행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처의 극중 행동을 설명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장남이 아니라 장녀이다. ② 장남이 아버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은 맞지만, 극중 인물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해설자 역할을 하면서 관객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장녀가 등장하여 전달하는 것은 교수와 처에 대한 정보뿐이다. 시·공간적 배경을 명시적으로 알려 주고 있지 않다. ⑤ 장녀가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의 생각에 가깝다. 또한 그녀의 생각은 보편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관객들이 이를 의심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관객들이 극중 상황에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